

##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홍 형 옥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교수)

지 은 영\*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강사)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을 위한 주거 공급과 유형개발을 세분화하여 주택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동안 공급된 주류 주택의 유형이 획일화 되어 있어 특수요구를 갖는 사람들의 요구를 주류 주택의 다양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주거가 필요하며(홍형옥, 2001), 본 논문에서는 그 모델을 영국의 보호주택에서 찾았다. 영국의 노인정책은 우리 나라의 정책과 다르지만, 영국과 같이 시설이 아닌 일반주택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일반노인들의 자발적 독립생활의지를 도와줄 수 있는 주거생활 대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계층에 따라 이러한 노인생활지원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공급관련 지원정책을 제안하는데 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와 신도시(분당, 일산)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 Window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수준에 따라 평균, 교차분석, 그리고 ANOVA를 실시하였다.

모든 계층이 노인생활지원주택(EAL)에 입주할 의사가 높게 나타나 14~20평 정도의 10가구 이내로 소규모로 모여 사는 노인공동생활주택으로, 각종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공동주택유형에 대한 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을 위한 노인생활지원주택으로, 공유공간은 입주자들만 사용하고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계층에 비해 장식적 특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도심근처나 교외에 수직아파트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소유시 2억이상, 월생활비는 80만원이상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계층으로서 현재 개발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버타운과 같은 수준의 운영이나 서비스 수요자가 노인생활지원주택의 수요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층은 여가·건강검진·식사제공까지 되는 공유공간시설이 좋은 것을 선호하며 이웃에의 개방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아 공유시설의 매력을 가장 크게 요구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입주비 1.5~2억원, 월생활비도 60~80만원의 지불의사가 있으므로 한 지붕 밑에 공유시설·관리인 서비스가 있는, 영국의 보호주택 2형과 2.5형의 중간적인 형태로서의 실용형 노인생활지원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층을 위한 노인생활지원주택은 공유공간을 개방하여 이웃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용료를 저렴하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서비스비용에 대한 문제와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자녀나 친구와 30분 이내에 위치하는 5층 정도의 다세대나 원룸형태의 개발이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소유할 경우 1억원 미만, 생활비는 30~50만원 정도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계층으로서 현재 개발, 운영되고 있는 실버타운 수준의 경제적 비용에는 접근이 어려운 계층임을 알 수 있다. 하층용 노인생활지원주택이 개발된다해도 자발적 부담으로는 요구하는 서비스나 입주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정부가 수요자에게는 주거비지원 형태의 재정지원을 하고, 공급자에게는 세제 지원, 저금리 건설자금 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다.